

작품 속에 드러난 문인과 고도의 인문 환경

제4강에서는 중국 문인들의 삶과 작품을 낳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문학과 지역문화의 만남을 통해 문인들의 삶과 관련 지역의 인문환경을 찾아본다.

목차

- 一. 저장성 사오싱紹興: 육유「채두봉釵頭鳳」, 왕희지王羲之「난정서蘭亭序」
- 二. 장쑤성 쑤저우蘇州: 장계「풍교야박楓橋夜泊」
- 三. 쓰촨성 청두城都 : 두보초당과「춘야희우春夜喜雨」
- 四. 장시성 지우장九江: 소식「제서림벽題西林壁」, 이백「망여산폭포望廬山瀑布」

一. 사오싱紹興: 육유, 심원沈園과「채두봉釵頭鳳」, 왕희지「난정집서」

1. 사오싱

저장성 동쪽에 있는 도시이다. 춘추시대에 월왕越王 구천句踐(기원전497-기원전465)이 도읍으로 정하면서 탄생하였다. 사오싱이란 지명은 북송 소흥 원년(1131)에 사오싱부紹興府로 된 것이 시초이다. 1912년에 사오싱현紹興縣이 되면서 이때부터 사오싱이라 불리기 시작하였다. 1979년 사오싱시가 되었다. 남쪽으로 회계산會稽山과 동호東湖 등이 있다. 동진 왕희지의「난정서蘭亭序」로 유명한 난정은 남쪽의 회계산 기슭에 위치한다. 중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 루쉰魯迅의 출생지로 루쉰기념관도 있다. 사오싱은 시내에 작은 다리가 많아 수향교도水鄉橋都라는 별칭도 있다. 논농사지대로 양질의 쌀이 생산되며 찹쌀로 빚은 사오싱주酒는 특산주[黃酒]로 유명하며, 부근에는 시인 육유와 깊은 인연의 심원沈園이 있다



출처: 네이버_사오싱紹興

2. 육유, 심원과 「채두봉釵頭鳳」

심원沈園은 남송 시대에 건립한 정원으로 심沈씨가 지었다하여 심원이라고 불렸다. 남송의 애국시인 육유陸游와 관련된 일화로 유명하다. 육유는 20살에 학문과 재능이 뛰어난 외사촌 여동생 당완唐婉과 결혼했다. 육유의 어머니는 남자들과 학문을 토론하고 후세가 없는 것 등을 구실로 당완을 미워했고 헤어질 것을 강요했다. 이혼 후 육유는 왕씨 성의 여자와 재혼을 하고 당완 역시 조사정趙士程과 재혼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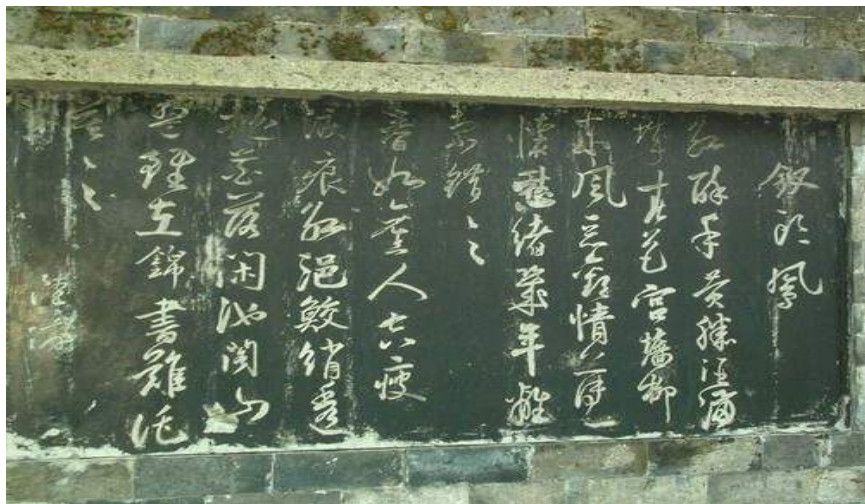
각자의 삶은 살고 있던 어느 날 육유는 심원에서 우연히 당완과 마주친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남의 남편과 남의 아내가 되었다. 애절한 마음에 육유는 심원의 벽에 「채두봉釵頭鳳--비녀머리 봉황」이란 시를 남긴다. 그 내용이 참으로 애절하여 심금을 울린다.

「채두봉」

육유

紅酥手, 黃縢酒 홍소수, 황등주
滿城春色宮牆柳 만성춘색궁장류
東風惡, 歡情薄 동풍오, 환정박
一懷愁緒, 幾年離索 일회수서, 기년이색
錯, 錯, 錯 착, 착, 착
春如舊, 人空瘦 춘여구, 인공수
淚痕紅浥鮫靑透 루흔홍읍교청투
桃花落, 閑池閣 도화락, 한지각
山盟雖在 산맹수재
錦書難托 금서난탁
莫, 莫, 莫 막, 막, 막

고운 손으로 황주를 권할 적에
궁 안의 버들가지 봄빛이 무르익었었지
몹쓸 봄바람 불어와 우리의 인연 깨어졌네
그리움을 간직한 채 몇 해를 보냈던가
잘못이었다. 잘못이었다
봄은 전과 같은데 사람만 속절없이 야위고
연지 묻은 눈물 손수건 적시네
복숭아꽃 진 한가로운 연못의 누각에
굳은 약속 변함없건만
마음의 사연을 보낼 길 없네
아서라, 생각말자



출처: 바이두_채두봉釵頭鳳

이를 본 당완이 자신을 못 잊어하는 옛 사람에게 화답을 한다.

「채두봉」

당완

世情薄, 人情惡 세정박, 인정악
雨送黃昏花易落 우송황혼화이락
曉風乾, 淚痕殘 효풍간, 루흔잔
欲箋心事, 獨語斜闌 욕전심사, 독어사난
難, 難, 難 난, 난, 난
人成各, 今非昨 인성각, 금비작
病魂曾似秋千索 병혼증사추천색
角聲寒, 夜闌珊 각성한, 야난산
怕人尋問, 咽淚妝歡 파인심문, 인루장환
瞞, 瞞, 瞞 만, 만, 만

세상살이 고달프고 사람 마음도 삭막합니다
빗줄기 황혼의 꽃잎 쉬이 떨어뜨리고
새벽 마른 바람 눈물 자욱 남기네요
마음 전하고파 난간에 기대어 홀로 되뇌나니
어려워라, 힘들어라
서로 헤어져 오늘은 어제가 아니건만
그리워하는 마음은 아직도 오가네요
수졸戍卒들의 호각소리에 밤은 깊어 가는데
행여나 마음 들킬까 눈물을 삼키며
감추고, 또 감춥니다¹⁾

당완은 답시를 남기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상심한 나머지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 후 40여년이 흘러 75세(1199년)가 되어 다시 심원을 찾은 육유는 당시를 회상하며 비통한 마음으로 「심원沈園」이라는 시(2수)를 남겼다.

「심원」2수

육유

夢斷香消四十年 몽단향소사십년
沈園柳老不吹綿 심원유로불취면
此身行作稽山土 차신행작계산토
猶弔遺蹤一泫然 유조유종일현연

꿈같은 나날 끊기고 향기 사라진지 사십년
심원의 버들도 늙어 버들 솜도 날리지 않는구나
이 몸도 회계산의 한 줌 흙이 되련마는
남은 자취 더듬으며 한 줄기 눈물을 떨군다²⁾

城上斜陽畫角哀 성상사양화각애
沈園非復舊池臺 심원비부구지대
傷心橋下春波綠 상심교하춘파록
曾是驚鴻照影來 증시경홍조영래

석양이 찾아든 성 위로 화각소리 애잔한데
심원은 그 옛날의 누대가 아니로다
상심하여 다리 아래 봄의 푸른 물빛을 바라보니
예전의 그대의 아름다웠던 모습이 비추이네³⁾

3. 왕희지와 「난정서」

난정은 춘추시대 월왕 구천이 여기에 난蘭을 심었고 한나라 때는 역참驛站을 세워 난정蘭亭이란 이름이 생겼다한다. 수차례 재건되었으며 현재의 난정은 최종적으로 청나라 때 재건되었다. 난정 입구에 “후지시금, 역유금지시석後之視今, 亦由今之視昔(후대 사람들이 현재의 우리를 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옛사람들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난정서」 중의 한 구절이 쓰여 있다. 서예의 성지이다.

당태종은 왕희지의 글씨를 좋아하였고 특히 「난정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난정서」는 왕

1) 秋千추천: 그네

2) 香消향소: 고대에는 젊은 여자가 죽었을 때 ‘향소옥운香消玉殞’(향이 사라지고 옥이 없어짐)이라 함.

3) 驚鴻경홍: 조식의 낙신부洛神賦에 나오는 “편약경홍翩若驚鴻”(놀라서 날아오르는 기러기처럼 자태가 곱고 늘씬함)을 말함. 여기서는 당완의 젊은 시절 아름다웠던 모습을 의미.

희지의 9대손 지영智永선사가 소지하다가 당나라 때 그의 제자 변재弁才에게 넘어갔다. 당태종은 왕희지의 글씨에 반하여 변재에게 교묘한 책략을 써서 빼돌려와 곁에 두고 늘 감상했다고 한다. 태종은 임종 전에 죽으면 함께 묻어달라는 유서를 남겨 소릉昭陵에 묻혔다 한다. 그 후 당말 혼란기에 능묘가 도굴되어 그 진적眞跡은 자취를 알 수 없다 한다. 현재 전하는 것은 정관(貞觀, 627-649)연간에 모사한 것을 다시 모사한 것들이다. 모사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당나라 서예가 빙소소憑承素가 모사했다고 전해지는 신룡본神龍本이다. 현재 베이징 자금성紫禁城의 고궁박물관故宮博物院에 소장되어 있다.



출처: 바이두_난정서蘭亭序 24cm x 88.5cm 북경 고궁박물관

왕희지(307-365): 자 일소逸少, 동진의 서예가. 산동성의 린이臨沂현 출생. 7째 아들 왕헌지王獻之와 함께 ‘이왕’ 또는 ‘희헌’으로 불린다. 우군장군右軍將軍의 벼슬을 하였다하여 ‘왕우군’이라 부르기도 한다. 서진의 여류 서예가 위부인衛夫人의 서풍을 배우고 한·漢·위·魏의 비문을 구하여 해서·행서·초서 등을 모두 익혔으며 ‘서성書聖’이라 한다[墨池 묵지: 먹 연못].

「난정서」는 왕희지(307-365)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전28행으로 이루어졌다. 300여자로 비단에 쥐의 수염으로 만든 서수필鼠須筆로 썼다고 한다. 천하제일의 행서로 불린다. 왕희지는 동진 목제의 영화9년(353) 3월 3일 난정에서 문인 41명과 계禊제사(3월3일 물가에서 몸을 씻어 액을 쫓아내며 소원을 비는 의식)를 올리고 유상곡수流觴曲水(곡수에 잔을 띄워 잔이 자기 앞에 오면 술을 마시고 시를 한수씩 짓던 문인들의 모임)의 연회를 열어 술을 마시며 시를 지었다. 당시의 모임과 감회를 모아 문집으로 만들고 본인이 직접 서문을 짓고 썼다. 「난정서」에는 총20여개의 갈지(之) 자가 나오는 데 글자 모양이 모두 다르다고 한다.

「난정서」

왕희지

永和九年 영화구년
歲在癸丑, 暮春之初 세재계축, 모춘지초
會於會稽山陰之蘭亭 회어회계산음지난정
修禊事也 수계사야
群賢畢至 군현필지
少長咸集 소장함집
此地有崇山峻嶺 차지유송산준령
茂林脩竹 무림수죽

영화 9년
해는 계축년 3월 초
회계 산음현의 난정에 모여
계제사를 거행한다
여러 현자들이 모두 모이고
젊고 나이든 이 함께 모였다
이 땅은 높은 산 가파른 고개 있는 곳
무성한 숲과 높은 대나무들

又有清流激湍 우유평류격단
 映帶左右 영대좌우
 引以爲流觴曲水 인이위유상곡수
 列坐其次 열좌기차
 雖無絲竹管弦之盛 수무사죽관현지성
 一觴一詠 일상일영
 亦足以暢敘幽情 역족이창서유정
 是日也 시일야
 天朗氣清 천랑기청
 惠風和暢 혜풍화창
 仰觀宇宙之大 양관우주지대
 俯察品類之盛 부찰품류지성
 所以遊目騁懷 소이유목방회
 足以極視聽之娛 족이극시청지오
 信可樂也 신가락야
 夫人之相與 부인지상여
 俯仰一世 부양일세
 或取諸懷抱 혹취제회포
 晤言一室之內 오언일실지내
 或因寄所托 혹은기소탁
 放浪形骸之外 방랑형해지외
 雖取捨萬殊 수취사만수
 靜躁不同 정조부동
 當其欣於所遇 당기흔어소우
 暫得於己 잠득어기
 快然自足 쾌연자족
 不知老之將至 부지노지장지
 及其所之既倦 급기소지기권
 情隨事遷 정수사천
 感慨繫之矣 감개계지의
 向之所欣 향지소흔
 俯仰之間 양부지간
 已爲陳跡 이위진적
 猶不能不以之興懷 유불능불이지흥회
 況脩短隨化 황수단수화
 終期於盡 종기어진
 古人云 고인운
 死生亦大矣 사생역대의
 豈不痛哉 개불통재
 每覽昔人興感之由 매람석인흥감지유
 若合一契 약합일계

또 맑은 시냇물 급한 여울이
 좌우를 비추는 곳
 물을 끌어들여 유상곡수로 삼고
 그 옆에 나란히 앉았다
 비록 성대한 음악소리 없지만
 술 한 잔에 시 한수
 그윽한 정취 화창하게 펼치기 족하네
 오늘은
 하늘은 맑고 공기는 청명하며
 따사로운 바람 화창했다
 우러러 우주의 장대함을 보고
 아래로 만물의 무성함을 보네
 눈이 가는데로 회포를 달리게 하고
 보고 듣는 즐거움에 만족하니
 가히 즐길 만하다
 무릇 사람이 함께 어울려
 한세상을 함께하는데
 여러 회포를 가지고
 한방에서 얼굴 마주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자연이 맡긴 이유를 찾아
 자신을 떠나 방랑하기도 한다
 비록 취하고 버림이 모두 다르고
 고요하고 조급함이 같지 않지만
 만나는 것에 당연히 기뻐하고
 잠시 자신에게서 자신을 얻고
 스스로 만족함에 기뻐하며
 늙음이 장차 이르는 것도 모르리라
 그러다 이미 싫증나는 바가 있고
 세상사 바깥에 따라 정도 바뀌고
 그윽한 마음 또한 그에 묶여 있지 않던가
 그 기뻐던 쪽으로 향해
 고개 숙였다 드는 사이
 이미 흔적이 되네
 어찌 즐거운 회포로 여기지 않을 수 없겠는가
 하물며 길고 짧음도 변화가 있어
 반드시 그 끝이 있으니
 옛 사람이 말하기를
 삶과 죽음 역시 크다 했으니
 어찌 비통하지 않으리
 매양 옛사람의 감흥의 이유를 보면
 마치 계약처럼 일치하니

未嘗不臨文嗟悼 미상불림문차도
 不能喻之於懷 불능유지어회
 固知一死生爲虛誕 고지일사생위허탄
 齊彭殤爲妄作 제팽잔위망작
 後之視今 후지시금
 亦猶今之視昔 역유금지시석
 悲夫! 故列敘時人 비부! 고렬서시인
 錄其所述 록기소술
 雖世殊事異 수세수사이
 所以興懷 소이흥회
 其致一也 기치일야
 後之覽者 후지람자
 亦將有感於斯文 역장유감어사문

일찍이 글을 대하면 탄식하지 않을 수 없고
 마음속에 그것을 깨우쳐 줄 수 없었다
 삶과 죽음을 하나라고 하는것은 허망한 소리요
 팽조와 요절을 나란히 하는것은 망령된 짓이다
 후인들이 지금을 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옛 사람들을 보는 것과 같으니
 슬프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순서대로 적고
 그 지은 바를 기록했다
 비록 세대가 달라지고 일이 바뀌어도
 감회를 일으키는 바는
 같을 것이다
 훗날 보는 사람은
 역시 이 글에 느낌이 있으리⁴⁾



출처: 바이두_유상곡수流觴曲水



二. 쑤저우: 장계 「풍교야박」 --한산사

1. 쑤저우

쑤저우는 춘추전국시대에 오쑤나라의 국도國都였다. 쑤저우의 옛 명칭은 오쑤이며 고소姑蘇 오도吳都, 동오東吳 등이 있다. 수문제隋文帝 개황開皇 9년(589) 쑤저우蘇州로 명칭을 정했다. 이는 서남부에 있는 고소산姑蘇山에서 유래되었다.

4) 회계: 절강성 소흥 동남쪽의 산 이름. 산음: 산음현. 지금의 소흥. 팽조: 800세까지 살았다는 전설상의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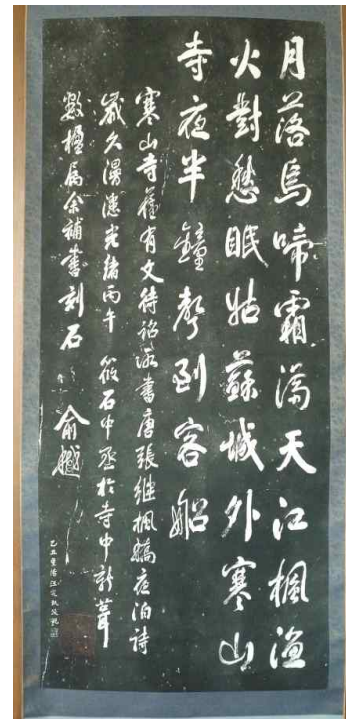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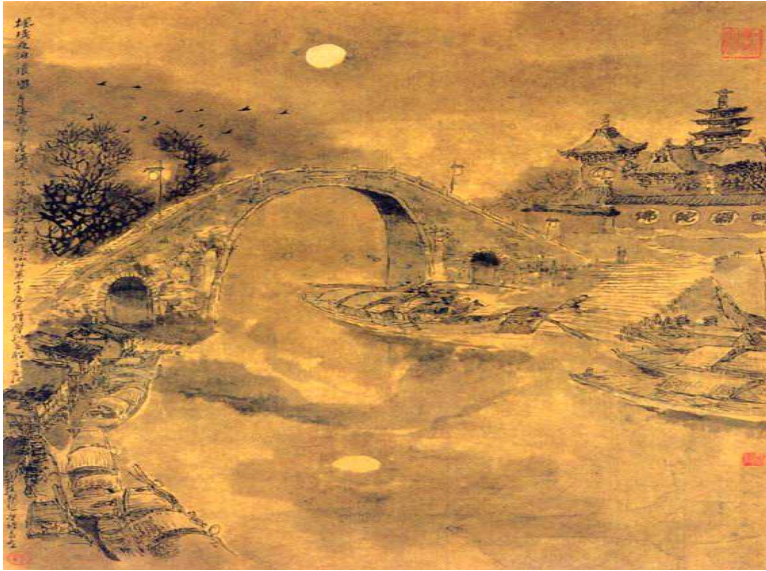
출처: 네이버_쑤저우蘇州

수나라 때 대운하가 개통되자 “강남의 쌀(江南米)”의 수송지로 활기를 띠면서 항저우杭州와 더불어 “천상천당, 지하소항天上天堂, 地下蘇杭(하늘에는 천당, 땅에는 쑤저우와 항저우)”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이다. 상하이가 개항하기 전까지는 우송강吳淞江의 수운을 이용한 외국무역도 활발하였다. 그래서 ‘물의 도시’라고 불린다. 전통적인 실크나 자수제품이 유명하였다. 쑤저우는 역사적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관료들의 쑤저우의 문화를 만들어 내었다고 한다. 관료·지주들의 정원이 많아 ‘정원의 도시’라고도 부른다. 4대 명원名園으로 창랑팅滄浪亭·스쯔린獅子林·취정위안拙政園·류위안留園이 있다. 쑤저우는 남쪽으로 저장성浙江省과 접하며 상하이시, 난징南京市 등 대도시와 근접해 있다.

2. 한산사寒山寺와 「풍교야박」

한산사는 쑤저우시의 서쪽으로 약4킬로미터 떨어진 풍교진楓橋鎮에 있는 사찰이다. 불교가 극성하던 남북조시대 양량나라 무제 천감天鑑(502~519)연간에 창건되었다. 원래 명칭은 묘보명탑원妙普明塔院이었는데, 당나라 시승 한산자寒山子和 습득拾得이 이곳에서 머문 후 “한산사”로 개칭하였다. 대웅전에는 유명한 종ی 있는데, 높이가 2미터이고 직경이 1.4미터이다. 일부 파괴되었다가 1911년에 재건하여 현재에 이른다.

한산사는 당나라의 시인 장계의 「풍교야박」이라는 시로 유명하다. 장계는 장안長安(현, 서안西安)으로 과거시험을 보러 갔다가 세 번째 고배를 마시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당시 그의 나이 56세이다. 그가 과거를 보던 당시 당나라 조정은 시제를 사전에 유출시킬 만큼 타락해 있었고 매관매직도 성행했던 암울한 시기였다. 도탄에 빠진 백성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고 크고 작은 변란도 끊임없었다. 이런 시기에 그는 낙방을 하고 돌아오다가 이곳에 머물다가 한산사로부터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게 된다. 이로 인해 자신의 낙담한 심정을 시로 표현한 것이 「풍교야박」이다.



출처: 바이두_풍교야박

「풍교야박」

장계

月落烏啼霜滿天 월락오제상만천 달 지고 까마귀 울 제 하늘엔 찬 서리 가득
江楓漁火對愁眠 강풍어화대수면 강가의 단풍과 어선의 불빛을 대하며 시름에 잠겨있네
姑蘇城外寒山寺 고소성외한산사 고소성 밖 한산사에서 울리는
夜半鍾聲到客船 야반종성도객선 한밤중 종소리가 나그네의 배에까지 들려오네⁵⁾

가을밤의 애수가 묻어난다. 한산사의 밤에 치는 종소리는 유명하다. 지금도 매년 12월 말일과 신년 사이에 종을 친다고 한다. 시에 등장하는 종은 청나라 때 일본인들이 약탈해 갔으며, 지금의 종은 1907년에 다시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

「풍교야박」은 암담한 현실과 자신의 절망이 깊게 뻗어 나간 시이다. 강가의 쓸쓸한 밤 풍경을 통해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하는 한 지식인의 서러움이 녹아난다. 어선에서 비친 불빛이 물결에 따라 흔들리는 것은 시인의 마음도 그러할 것이다. 달밤이 주는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절묘하게 표현했다.

三. 쓰촨: 두보초당과 「춘야희우春夜喜雨」

5) 풍교楓橋: 쑤저우시 서남 교외의 다리 이름 또는 지명. 江楓: 강교와 풍교라고도 함. 고소성姑蘇城: 쑤저우 고소대姑蘇臺의 성. 고소대는 춘추시대 오왕吳王 부차夫差가 서시西施를 위해 쌓은 대이다. 부차가 월왕越王 구천句踐을 이겼을 때 구천은 미인 서시를 부차에게 바치자 부차는 서시와 향락에 빠진다.



출처: 네이버_쓰촨성

1. 쓰촨

쓰촨의 성도省都는 청두成都이다. 중국 남서부 양쯔강 상류에 위치한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촉蜀 나라의 영토였다. 『삼국지』의 유비가 세운 촉나라의 수도이다. 진秦나라가 파촉巴蜀이라 불리던 이 지역을 병합하였고, 한漢나라 때에는 익주益州에 속했다. 송나라 때는 익·益·梓·이·利·기주夔州 등 “천협사로川峡四路”를 설치하고 줄여서 “사천로四川路”라고 불렀다. 원나라 때 사천행성四川行省을 두었고, 명·청대에 이르러 쓰촨성四川省이 되었다. 창강長江·민강岷江·튀강沱江·자링강嘉陵江의 4대 강이 성내를 흐른다하여 “쓰촨四川(사천)”이라는 명칭이 유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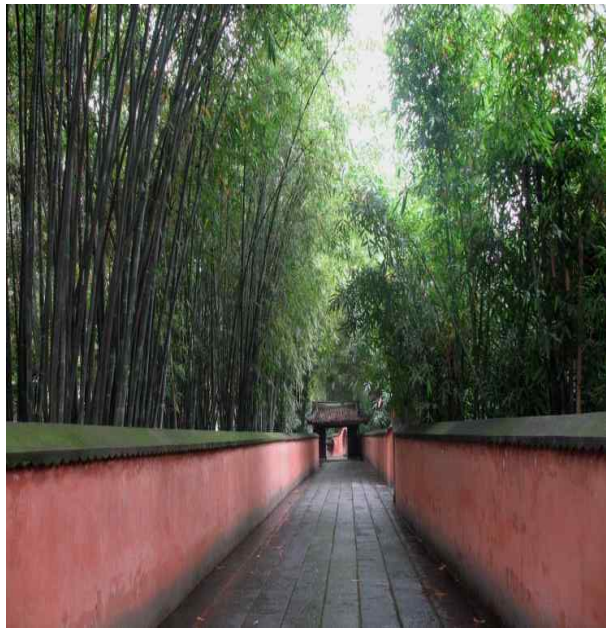
쓰촨성은 18개 시, 3개 자치주, 21개 행정구, 43개 시할구市轄區, 14개 현급시縣級市, 120개 현縣, 4개 자치현 등 총181개 행정구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성이다. 대부분 지역을 쓰촨 분지가 차지하며, 기후가 온난하여 아열대성 농작물이 풍부하다. 쌀 생산량이 전국 1위이며 매운 특징의 사천요리가 유명하다.

2. 두보초당과 「춘야희우」

두보초당은 두보(712~770)가 안사의 난 이후 이곳으로 내려 와 759년부터 약 4년간 기거했던 곳이다. 당시 두보 나이 48세이다. 당시는 초막 한 채가 있던 것이 명·청대에 확장 공사를 하여 약 20만m²에 달한다. 정문에 들어서면 시사당詩詞堂이 나타나며 그 안쪽으로 있는 공부사工部祠에는 두보의 소장塑像과 석상石像이 있다. 그 뒤로 정원이 있다. 1954년부터 두보기념관을 세워 두보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출처: 바이두_두보초당



이곳에서 지은 대표적인 시가 그 유명한 「춘야희우春夜喜雨--봄밤의 기쁜 비」이다.

好雨知時節 호우지시절
當春乃發生 당춘내발생
隨風潛入夜 수풍잠입야
潤物細無聲 윤물세무성
野徑雲俱黑 야경운구흑
江船火燭明 강선화촉명
曉看紅濕處 효간홍습처
花重錦官城 화중금관성

좋은 비는 시절을 알아
봄이 되니 이내 내리네
바람 따라 몰래 밤에 들어와
소리 없이 만물을 적시네
들길은 온통 구름 끼어 어두운데
강 위에 뜬 배의 불빛만이 밝구나
새벽녘에 붉게 젖은 곳을 보니
금관성에 꽃들이 활짝 피었으리⁶⁾



출처: 네이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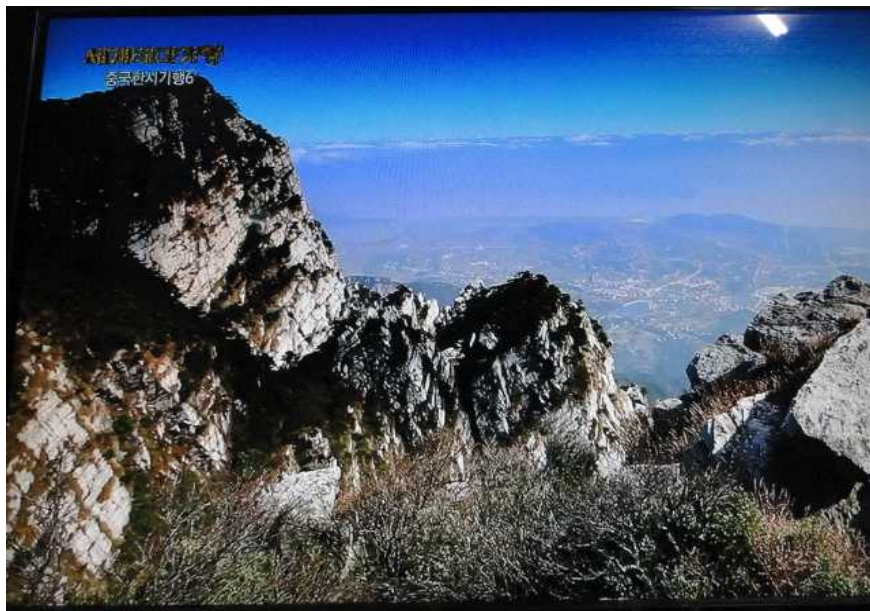
6) 금관성錦官城: 청두城都를 말함, 청두에는 옛날에 대성大城과 소성小城이 있었다. 소성에는 비단 짜는 것을 관장하는 관리들이 거주하여 금관성이라 불렀다함.

두보가 초당에 거하면서 봄비 내리는 밤의 정경을 읊은 시이다. 봄비가 내릴 때 떠오르는 대표적인 시로 불린다. 시인은 봄비를 바라보는 ‘심정’, 봄비가 내리는 ‘광경’, 봄비를 바라보는 현재의 ‘시간’, 그리고 봄비로 인해 금관성(청두)의 변한 모습의 ‘상상’ 등을 자연스럽게 펼쳐나갔다. 특히 소리 없이 온 세상을 촉촉이 적셔준다는 “潤物細無聲 윤물세무성”이 명구로 회자된다. 안사의 난으로 황폐화 된 고국의 현실을 슬퍼하고, 실의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왔던 두보. 이곳[이 시는]은 그가 진정 평안한 시간을 보낸 유일한 장소[시간]이었을 것이다.

四. 장시성: 지우장과 소식 「제서림벽題西林壁」, 이백 「망여산폭포」

1. 지우장과 여산廬山

지우장은 지우장시의 북쪽으로는 장강이 흐르며, 동쪽에는 담수호 파양호가 있고, 남쪽으로는 99개의 봉우리를 지닌 아름다운 여산이 있다. 8개의 지류가 파양호로 흘러 들어간다 하여 “구강九江”이라고 불렀다 한다. 장시성의 성도인 난창南昌과 도자기 생산지 경덕진景德鎮시와 근접해 있다.



출처: 네이버_여산

여산은 장시성 지우장시에 있는 명산이다. 1982년 국무원에 의해 국가중점풍경명승구로 지정되었고, 1996년에 유네스코에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여산은 중국 문인들의 창작의 본고장이라 할 만하다. 동진의 도연명 「귀거래사」, 「음주 20수」, 이백 「망여산폭포」, 백거이 「비파행」 등이 쓰여진 현장이다. 또한 중국 남방불교가 성행한 곳으로 동진의 혜원慧遠이 거주한 동림사가 있는 불교의 성산이다. 남송 이학가 주돈이가 도학과 성리학의 기초를 세우던 곳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문학과 철학, 예술의 본고장이다.

2. 여산과 소식 「제서림벽題西林壁」

여산은 ‘여산진면목(여산의 참모습)’이라는 뜻으로 유명하다. 참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움을 비유하는 말이다. ‘여산진면목’은 송나라 때 소식의 「제서림벽」이라는 시의 한 구절이다. 이 시는 소식이 여산을 유람하고 마지막으로 서림사西林寺에 들러 그간의 감회를 읊은 것이다. 소식은 여산을 유람하면서 총7수의 시를 지었는데 「제서림벽」이 그 중 한 수이다.

「제서림벽」은 ‘서림사 벽에 쓴 시’라는 뜻이다. 동진 시대에 세워진 서림사는 여산의 북서쪽 기슭에 있는 유명한 고찰이다. 소식은 1079년 호주湖州 지사로 부임되었다. 당시 그는 시의時意를 잘 헤아리지도 못해 신진을 따라가기도 어렵고 백성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신을 황제께서 호주지사로 부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황주사표(黃州謝表)」를 올렸다. 그런데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려는 것이었으나 신법파들은 자신들을 비웃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로 인해 황주로 유배되었다가 1084년 다시 여주汝州로 유배지를 옮기게 된다. 황주를 떠나 여주로 향해 가던 중 여산을 유람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

「제서림벽--서림의 벽에 쓴 시」

소식

橫看成嶺側成峰	횡간성령측성봉	앞에서 보면 산줄기 옆에서 보면 봉우리
遠近高低各不同	원근고저각부동	멀리서 가까이서 높은 데서 낮은 데서 그 모습 각각일세
不識廬山眞面目	불식여산진면목	여산의 참모습을 알지 못함은
只緣身在此山中	지연신재차산중	단지 이 몸이 산 속에 있기 때문이라네

송나라 때 유행한 이치를 논한 “설리시說理詩”에 속한다. 여산은 어디에서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매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안개에 싸여 참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여산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시는 제한된 각도에서는 한정적인 부분만 보이므로 대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으며, 나 안에 갇혀있으면 나를 못 보는 것과 같은 이치를 전하고 있다.

3. 여산과 이백 「망여산폭포」

여산폭포는 중국에서 아름다운 폭포 중 하나로 손꼽힌다. 예로부터 많은 문사들이 폭포의 웅장함을 찬미하는 시를 지었다. 그 중 이백의 「망여산폭포」가 대표적이다.

「망여산폭포--여산의 폭포를 바라보며」

이백

日照香爐生紫煙	일조향로생자연	향로봉에 햇빛 비쳐 보랏빛 안개 어리고
遙看瀑布掛長川	요간폭포괘장천	멀리서 보니 폭포는 강을 매단 듯하네
飛流直下三千尺	비류직하삼천척	물줄기 내리쏟아 길이 삼천 자
疑是銀河落九天	의시은하낙구천	하늘에서 은하수가 쏟아지는 듯하네

여산과 폭포의 웅장함을 시각적이고도 속도감 있게 표현한 점에서 이백의 호탕한 기개와 풍부한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 조선의 기생 황진이이는 ‘비류직하삼천척, 의시은하낙구천’을 개성 박연폭포 용바위에 새겨 놓았다고 한다.